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6²⁰²⁴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6

시절 인연	02	한결같이 나아가는 정진의 힘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성인
법정 스님 편지	10	오늘 아침 양귀비 개화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2	차를 마시면서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바수밀다婆須蜜多 여인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돌 속의 별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6월 1일 발행 / 통권 352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한결같이 나아가는 정진의 힘

요즘 피꼬리 소리 더러 들으세요? 조금 더 있으면 빠꾸기도 올 텐데... 철 따라서 철새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매연과 황사로 뒤덮이고, 소란스러운 세상인데도 철새들이 잊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옵니다. 이런 걸 보면 생각할 바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데, 짐승들은 한 철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햇차가 나올 무렵에는 피꼬리가 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4월 보름 여름 하안거 결제일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인도에서는 이 시기에 우기雨期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니 스님들이 여기저기 다니기 불편하니 한 곳에 모여 정진합니다. 그래서 우안거雨安居라고 합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번 안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결제結制 하는 날입니다. 왜 잊을만하면 이런 안거가 오고, 결제 날이 오는가 하는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각오로서 시작하라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불가佛家에서는 석 달을 한 철이라 하는데, 여름 한 철에 어떤 정진을 하든 간에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여름 안거 90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원願을 세워야 합니다. 지극히 일상

적인 하루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는 등 저마다 형편과 상황에 맞는 원들을 세워서 이루도록 정진精進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방에서 참선하는데 화두를 잘못 들면 고슴도치처럼 잔뜩 긴장해서, 혼자 도사가 다 된 것처럼 도반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선적으로 주력呪力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진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정진을 하든지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얼굴에 기쁨이 솟습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남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점검을 하세요. 내 마음 상태를 보면 내 지금 얼굴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의 꼴이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내면이 어떠한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정진하는 사람들은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웃에서 보더라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또 좌선할 때 마음가짐으로 발보리심發菩提心을 먼저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진이 제대로 되지 혼자서만 깨닫겠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 태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참회하고 발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량겁無量劫을 지나오면서 어떤 빛을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하는 삶의 목

표를 세워서 발원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원願의 힘으로써 불보살이 되었고, 중생은 자기가 하는 그 業業의 힘으로써 중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업과 원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지장전地藏殿을 흔히 으스스하고 어둡고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장소로만 잘못 알기 쉽습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라서 승상僧想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합니다. 중국 구화산에 가면 신라 스님이 와서 공부하셨는데, 그분을 지장보살로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까지 포함해서 청정법신淸淨法身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분신分身이고, 화신化身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보살들입니다. 그러므로 청정법신이 관세음보살로 나타날 수 있고, 지장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대세지보살로서도 나타날 수 있기에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장보살입니다.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보살이 성도하기까지 공간을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라고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끝에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미륵부처님이 출생하기 전까지 빈 공간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장보살에게 중생 제도를 해줄 것을 부촉付囑 합니다.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 제도를 부촉받은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장보살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든 중생이 다 제도한 다음에 맨 끝으로 자기가 제도를 받겠다는 원을 세우잖아요. 이 원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스럽습니까? 설사 부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극한 원을 세우고 있는 한

지장보살은 훌륭한 구도자이고 또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집에는 다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날라리 엄마들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엄마들은 지장보살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식구들 뒷바라지하면서 애간장 다 녹잖아요. 본래부터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여성인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온갖 고통과 모든 횡難橫難과 기진氣盡을 다 겪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애먹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대상을 오히려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대상이 없다면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애먹이는 대상이 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주력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법당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법당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당에서만 기도하고 돌아서면 다른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익혔던 정진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뜸이 안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이 되어서, 제일 오래 산 절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선방에서도 정진했고, 강원에 내려와서

경도 배우고 했었는데, 처음 한 2~3년 동안은 완전히 풋 중 시절이라, 겉도는 시절이었습니다. 한 2~3년 지나서야 중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서서히 잡혔습니다. 내가 해인사에 수행하면서 지금도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조석 예불을 마친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장경각인 법보전에서 홀로 기도했던 일이, 내 생애에서 가장 많은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정진했지만, 내가 중노릇하는데 커다란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인사 장경각 법보전 양쪽에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주련이 있습니다.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 어디 있느냐? 저기 멀리 극락세계 같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 부처님 계셨던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행동하는 이 현실 자체가 부처님 세계, 바로 여기가 원각도량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법당에 걸려 있는 주련 글씨는 다 훌륭한 법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인용한 법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님한테 내용이 무슨 뜻인지 물어서, 법문으로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삼업三業,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맑히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 안거 기간에 각자 원을 세우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 현재의 보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2006년 5월 12일 하안거 결제 날에 법정 스님이 길상사 극락전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성인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207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성인의 원어는 무니(muni, 牟尼), 즉 침묵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성자를 가리킨다. 석가모니는 사카(sakya, 釋迦)족 출신의 성인이라는 뜻이다.)

208

이미 돌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209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210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彼岸]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11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2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3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4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연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은 강이나 연못 등 사람들이 목욕하는 곳에 네모나 팔모의 기둥이 있어, 그 기둥에 대고 몸을 문지르며 씻는데, 이 기둥은 귀한 사람이 오거나 천한 사람이 오거나 조금도 우쭐거리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다.)

215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6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

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7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8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9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 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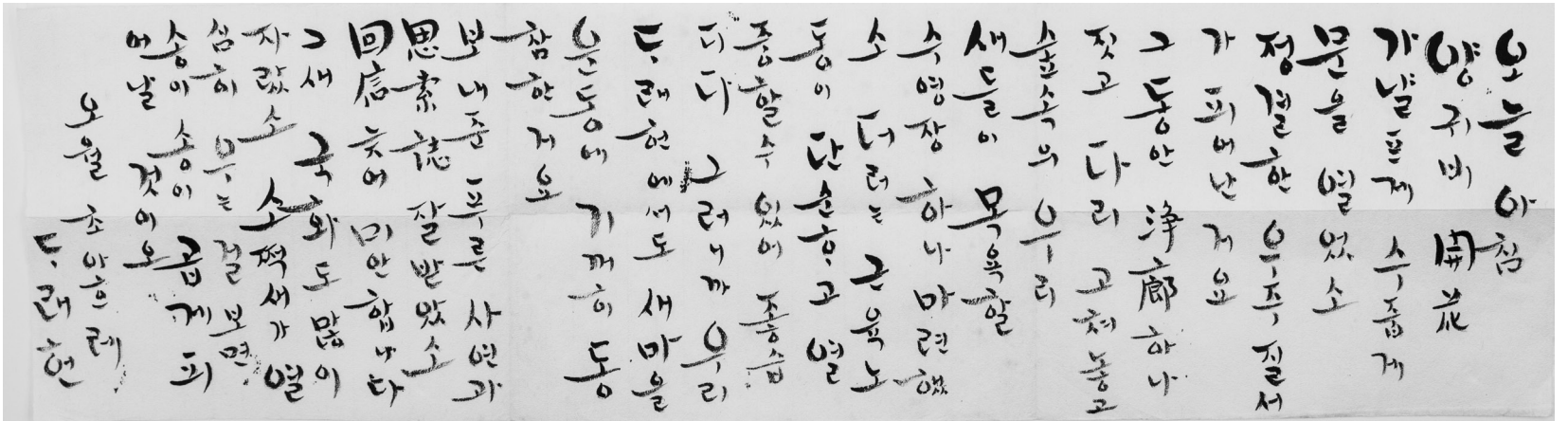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221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 다음 호에 207~221 강론이 이어집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오늘 아침

양귀비 개화開花

가날프게 수줍게

문을 열었소

정결한 우주 질서가

피어난 거요

그동안 정량淨廊 하나 짓고

다리고쳐놓고

숲속의 우리 새들이 목욕할

수영장 하나 마련했소

더러는 근육노동이 단순하고

열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래헌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기꺼히 동참한거요

보내준 푸른 사연과

사색지思索誌 잘 받았소

회신回信 늦어 미안합니다

그새 국화도 많이 자랐소

소쩍새가 열심히 우는 걸 보면

송이송이 곱게 피어날 것이오

오월 초 아흐레

다래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5월 9일 유영숙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주변에 보면 차 좀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예를 갖춰야 한다면 한복을 입고, 오른손은 어떻게 하고 왼손은 어떻게 하고, 눈은 또 어디다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만, 그렇게 격식 따지는 걸 보면 조금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싫어서 “아이고 복잡하다. 나는 그냥 차 안 마시련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차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마를 때 그냥 찻잎 넣어서 마시고 그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법도가 어떻다, 절차가 어떻다 하다 보니 차 문화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문화나 제도가 사람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차를 마시는 것도 사람, 차를 즐기는 것도 사람이죠. 차가 규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차는 그냥 마시는 것이고,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과도한 격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차는 검소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시는 일도 검소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산중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한가롭고 가장 맑은 시간이 차 마시는 시간이에요. 좌상(坐想)하고 나서든, 방 청소(방 청소)를 하고 나서든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그게 참

좋아요. 꼭 마음이 청소가 되고 정화가 되는 것 같다니까요. 여기 모이신 어머니들도 그럴 거예요. 남편 회사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것저것 치우고 나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아주 맑고 향기로운, 삶의 운치가 우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듯 차는 고급스러운 문화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유흥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니, 지나친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이를 너무 곱지 않은 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산초당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 다산이 차 끓여 마시던 부뚜막도 있고, 약천(藥泉)도 있고, 또 돌레에 차나무도 있고 합니다. 근처에서 다산 글씨 복사본을 팔길래 하나 사서 배접(裱接)까지 해서 놓고 보았는데, 복사품은 틀에 넣으면 답답해. 생명력이 없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나 글씨를 사 오면 며칠은 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릇도 그런 거예요. 갖고 싶다고 바로 사지 말고 조금 유예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돼요. 내가 간직할 필요는 없어요. 박물관에 가든지 미술관에 가서 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 문신인 이규보 선생 아시지요. 이분이 또 차를 좋아해서 차에 대한 시를 많이 남겼어요. 전에 내 책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옮겨 보겠습니다.

산승탐월색(山僧貪月色)

병급일병중 壺汲一瓶中

산에 사는 스님, 달빛이 탐이 나서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밤에 개울가에 가서 물을 길다가 달도 함께 길어 담은 거예요.
꼭 보지 않아도 눈에 떠오르게 하는, 그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사방응각 到寺方應覺

병경월역공 瓶傾月亦空

절에 이르면 깨닫게 되겠지
병을 기울이면 달도 사라진다는 것을

비록 달빛을 탐하여 병에 담이는 왔지만 끝내 그 달빛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요. 앞의 묘사도 참 좋지만 뒤의 깨달음도 참 좋습니다.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

또 『다경』이나 『생활의 발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차를 마실 때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시끄러우면 아늑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맞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아취 雅趣가 줄어들 겁니다.

차를 마실 때, 나 홀로 마시는 것을 이속 離俗이라고 해요. 세속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차를 마시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또 둘이 마시면 즐겁다고 해요. 서넛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섯이 넘어 가면, 이건 참 곤란해요. 그때부터는 차 마시는 거 아니에요.

차를 마실 때는 모든 일손을 놓아야 돼요. 마음이 한가해야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기도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도 음미해 보세요. 여건이 되면 다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무슨 방을 따로 하나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는 방에서 식구들끼리 같이 차를 마실 수 있으면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나머지 잔소리는 그만하고, 중국 당나라 때 시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잔을 마시니 목구멍과 입술이 촉촉해지고
두 잔을 마시니 외롭고 울적함이 사라지며
석 잔을 마시니 가슴이 열려 문자로 그득하고
넉 잔을 마시니 가벼운 땀이 나서
평소 불평스럽던 일들이
모두 땀구멍으로 흘러지네
다섯 잔을 마시니 뼈와 살이 맑아지고
여섯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게 되며
일곱 잔을 마시려고 하니 양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솔솔 일어난 듯하구나
봉래산이 어디멘고
이 맑은 바람 타고 훨훨
그곳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 이 글은 1999년 4월 9일 길상사 설법전 불교문화강좌에서 법정 스님께서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듯 하신 말씀을 일부 옮긴 것입니다. 스님과 차 한잔 나누신다는 느낌으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보고 싶으시다면, (사)맑고 향기롭게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진짜 나를 찾아라'(샘터 출판사)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수밀다婆須蜜多 여인

이때 선재 동자는 큰 지혜 광명이 비치어 마음이 열리고, 사유 관찰해 법의 성품을 보고, 모든 어음語音을 아는 다라니문을 얻었다. 모든 법문을 받아 지니는 다라니문을 얻었고,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대비력大悲力을 얻었고, 모든 법의 이치를 관찰하는 광명의 문을 얻었고, 법계에 가득한 청정한 서원을 얻었다. 시방의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는 지혜 광명을 얻었고, 모든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자유자재한 힘을 얻었고, 모든 보살의 행업을 널리 펴 일으키는 원만한 서원을 얻었다.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험난국 보장엄성에 이르러 여기저기 바수밀다 여인을 찾았다. 바수밀다 여인을 찾는 동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공덕과 지혜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동자는 용모가 단정하고 총명해서 미혹하지도 어지럽지도 않으며, 가는 길에만 눈을 두고 게으름과 집착이 없다. 눈을 깜박이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일도 없다.

바수밀다에게 연정이나 허황한 마음을 내어 반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 동자는 마의 짓을 행하거나 그 경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마의 속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을 찾고 있을까.’

또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선재에게

이렇게 말한 이도 있었다.

“그대가 이제 바수밀다 여인을 찾아왔으니, 그대는 이미 무한한 이익을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부처님의 자리果位를 구할 것이며, 모든 중생의 의지가 될 것이며, 반드시 모든 중생의 탐애의 화살을 뽑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이들이 여색에 대해서 지니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깨뜨릴 것입니다. 바수밀다 여인은 이 성안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 집에 있습니다.”

선재 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집 문 앞에 이르렀다. 집을 살펴보니 크고 홀륭하며, 보배 담과 보배 나무와 보배 해자가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고, 그 해자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었다. 천상의 보배꽃과 우발라화, 파두마화, 구물두화, 분다리화 등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궁전과 누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문과 창호가 간 데마다 마주섰으며, 당번의 깃발이 펄럭이며 눈부시게 치장되어 있었다.

선재 동자는 그 안에 있는 바수밀다 여인을 보았다. 용모는 단정 원만하고 살갗은 금빛이며, 눈매와 머리카락이 검푸르고 알맞아 육계의 사람이나 하늘로는 견줄 수 없었다. 음성이 아름다워 범천보다 뛰어나고, 모든 중생의 온갖 말을 두루 갖추고, 글자와 글을 잘 알아 답론이 능란하였다. 허깨비 같은 지혜[如幻智]를 얻어 방편의 문에 들어갔고, 보배 영락과 장신구로 그 몸을 단장하고, 여의주로 관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또 수많은 권속들이 에워싸 선근이 같고 행과 서원이 같고 복덕을 갖추어 다함이 없었다.

이때 바수밀다 여인의 몸에서 찬란한 광명이 뻗어 나와 그 집의 궁전에 두루 비쳤는데, 이 광명을 받는 이는 모두 몸이 서늘하고 상쾌했다. 선재는 그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여인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탐욕의 틈을 떠난 해탈을 얻었다. 보는 이들의 욕락欲樂에 따라 현신現身하는데, 천인이 나를 볼 때는 천녀가 되어 모양과 광명이 견줄 데 없이 뛰어나며, 또한 인비인人非人이 볼 때는 나도 인비인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락대로 나를 보게 한다.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어 내게 오면,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해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게 한다. 어떤 중생이고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환희삼매歡喜三昧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고 잠깐만 나와 이야기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결립 없는 음성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고 잠깐만 내 손목을 잡아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 가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고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해탈 광명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고 잠깐만 나를 생각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이고 잠깐만 내가 팔을 펴는 것을 보아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이고 내 눈이 깜박이는 것을 보기만 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의 불경계 광명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이고 나를 끌어 안으면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 주면서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으며, 어떤 중생이고 내 입술만 한 번 맞추어도 탐욕이 사라지고 보살이 중생의 복덕을 늘게 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와 같이 나와 가까이하는 중생들은 모두 탐욕을 떠나는 틈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결립 없는 해탈에 들어간다.”

선재 동자가 물었다.

“성자께서는 어떤 선금을 심고 무슨 복덕을 닦았기에 이와 같은 자재自在를 성취하셨습니까?”

바수밀다 여인이 대답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이름이 고행高行이고 그 왕도는 묘문妙門이었다. 그 고행여래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고 왕도에 들어와 성문의 턱을 밟으니, 그 성안에 있던 모든 것이 진동하며 갑자기 넓어지고 온갖 보배로 장엄했다. 한량없는 광명이 서로 비추고 갖가지 보배꽃을 땅에 묻으며, 천상의 음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모든 천신이 허공에 가득했다.

나는 그때 장자의 아내였는데, 이름은 선혜善慧였다. 부처님의神通력을 보고 마음이 열렸고, 남편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가서 금화 한 닢을 공양했더니. 그때 부처님의 시자인 문수사리 동자가 나에게 법을 말해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게 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탐욕의 틈을 떠난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그지없이 오묘한 방편의 지혜를 성취해 그 장藏의 광대함이 비길 데 없으니, 그 경지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선도善度라는 성이 있고, 그 성에 비슬지라鞞瑟羅 거사가 있는데, 그는 항상 전단좌旃檀座 불탑에 공양하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 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돌 속의 별

돌의 내부가 암흑이라고 믿는 사람은

돌을 부딪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에 별이 간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노래할 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은

저물녘 강의 물살이 부르는 돌들의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며 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은

돌에서 울음을 꺼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냉정이 한때 불이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돌이 무표정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안으로 소용돌이치는 파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무표정의 모순어법을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모임**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제5기 대학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사)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대학생 불교 인재 26명을 선발하여, 5월 18일(토) 길상사 다라니 다원에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여식과 더불어 장학생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장학생들의 진로, 취업, 인간관계, 전공 분야에 대한 고민을 길상사 주지 덕조스님, 이종승 심사위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었던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 맑고 향기롭게 모임 발족 시부터 현재까지 31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휴학이나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본회와 인연을 맺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법정 스님 미공개 강연록 <진짜 나를 찾아라> 출간

법정 스님이 1994년 발족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이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 춘천, 대구, 창원,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법정 스님이 펼친 강연을 글로 풀어 [진짜 나를 찾아라/샐터] 강연집을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출간된 강연 내용은 아날로그 테이프에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던 자료라서 더욱 의미를 지닙니다. 스님의 강연은 그대로 풀어 놓으면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됩니다. 교훈과 유머, 위로와 격려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지막이, 때로는 격하게 말씀하시는 법정 스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더구나 강연 내용이 20~30년 전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가르침과 위안을 줍니다. 어쩌면 점점 더 진짜 나의 모습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본회 장학금으로 모두 사용되며, 우리 사회를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 숲기행 일정 안내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

- 6월 29일(토) / 경남 양산 통도사 / 접수일 : 6월 3일(월)
- 7월은 더위로 휴회

- 8월 24일(토) / 경남 합천 해인사 / 접수일 : 8월 1일(목)
- 9월 28일(토) / 전남 해남 우수영, 무안 화산 백련지 / 접수일 : 9월 2일(월)
- 10월 26일(토) / 경북 김천 직지사 / 접수일 : 10월 1일(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참가 신청은 중앙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 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입재 : 5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 원)

입재	5월 22일(수)
초재	7월 7일(일)
2재	7월 14일(일)
3재	7월 21일(일)
4재	7월 28일(일)
5재	8월 4일(일)
6재	8월 11일(일)
막재	8월 18일(일)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6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 일시 : 6월 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6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6월 2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6월 29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 일시 : 6월 16일(셋째일) 오전 11시 / 법사 : 남전 스님
- 일시 : 7월 21일(셋째일) 오전 11시 / 법사 : 해민 스님

하안거 해제 법회

- 일시 : 8월 18일(셋째일) 오전 11시 / 법사 : 덕조 스님

수강생 모집

사경과 함께하는 수행 기도반

- 개 강 : 5월 22일(수) (총 16강)
매주 목 14:00~15:40 (100분) / 설법전
- 동참금 : 20만원

불교입문 47기

- 개 강 : 5월 23일(목) (총 10강 및 수계식)
매주 목 13:30~15:30 (120분) / 설법전
- 동참금 : 10만원
- ※ 6월 6일은 휴강입니다.

마가 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 정 : 매주 토·일요일 14:00~16:00 / 설법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외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접 수 : 텀플스테이 홈페이지
(QR코드 스캔-URL 접속가능)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